

# 폐석산 폐기물 처리 해결방안 합의

### 익산시, 전문가 의견 반영한 상급 기관 · 주민대표와 협약 체결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급 기관 및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전라북도, 주민대책위, 복구협의회 대표와 함께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 처리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 폐기물과 침출수 우선 이적 처리 등 해결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와 수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은 △오염 폐기물도양 15

만 8,789㎡(20.6만톤)과 폐석산 침출수 4만3,000~4만7,000㎡ 우선 이적 처리 △비오염으로 선별된 폐기물도양 분 석기관 검증과 추가 이적 처리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지속 처리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2018년에 실시한 용역 및 업무협약에 맞춰 불법 매립된 폐기물 143만톤을 전담 이적처리하는 방안으로 행정대 집행을 실시했으나, 올해 용역을 수행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8년 용역결과와 비교하면서 오염층, 오염분포도, 용량 등 폐기물 적정 처리범위를 산출했다.

올해 실시한 용역은 기존의 전담 이적처리 입장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민 대책위와의 많은 논의 끝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폐기물 혼입토사, 침출수의 적정처리가 폐기물 처리 장 기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 여러 요건을 고민해 협약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복구협의체가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당사자 모두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의회는 추석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나서

##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 행보

### 익산시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 전통시장 장보기 펼쳐

익산시의회의(의장 최중오)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도 나서며 민생 행보를 펼쳤다.

먼저 최중오 의장, 한동연 부의장 등 의장단은 26일 오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월광효도마을 사은의 집'과 '기독교애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시설인소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의장단은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합일시장을 찾아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소통하며 민생 행기에 나섰다.

최중오 의장은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분들과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민족대명절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며,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익산시의회의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실현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의회 "새만금 통합 상생안 과감한 결단을"

### 새만금 관할권 분쟁 관련

### 도지사의 결단 촉구

군산시의회의(의장 김영일)에서는 26일 정부의 새만금과 전북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정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의는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하면서 잼버리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잼버리 파행 떠남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으로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

다 쟁송이 제기되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에 상정 중인데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달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추석 명절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총 6일간의 황금연휴로 출향인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발길이 예상됨에 따라 버스 터미널, 군산역 등 인파가 집중되는 곳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 선유도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등 대표 관광지에서 전단지, 라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온라인 홍보를 병행, 시 블로그·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게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특히 이번 집중홍보 기간에는 기부 감사 이벤트를 진행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선착순 100명에게 군산시상품권(2만원)을 지급한다. 즉,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3만원 상당),

상품권(2만원) 총 15만원의 혜택을 가져가는 셈이다.

기부 감사 이벤트는 시간여행축제(10. 6. ~ 10. 9.)까지 계속된다.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존'에 방문하면 현장 기부가 가능하며 고향사랑 답례품도 시식 후 선택할 수 있다. 쿼즈 및 톨렛 이벤트를 통한 기념품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고향사랑기부로 더욱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며 시간여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부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고향사랑기부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누구나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 가능하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중화권 관광객 유치 · 관광상품 개발 위한 협약 체결

익산시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기반 강화와 국외 관광객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화권 전담 여행사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2023 익산방문 해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 아간경관관광, 호러 프로그램 XR과 결합한 익산교도소세트장 등 다양한 K-컬처 콘텐츠 상품

화 제안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전담 여행사인 (주)투데이스트래블 (주)왕조여행사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중화권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국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중화권 관광객 모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주요 관광자원과 대표축제를 소개하고 이번 협약을 통하여 중화권 특수목적관광객(STM)·수학여행단 등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익산시 국외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전통명가 이용 홍보 나서

군산시는 추석을 맞아 관내 전통명가 30개소와 착한가격업소 28개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전통명가와 착한가격업소 애용 SNS 게시·팝플릿 배부 등 내실 있는 홍보와 더불어 업체에 대해 고객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의 친절·서비스 제공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전통명가는 군산시에 소재한 30년 이상 지속·동일업종을 영위한 소상공인 업체로 △희소성·경쟁력 △업주의 의지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의 심사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 전통명가로 선정된 업체들은 소상공인 자긍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홍보가케팅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성장·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추석 연휴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익산시는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순환형 시티투어는 오전 10시, 익산역에서 출발하여 원불교총부, 고스라ک, 교도소세트장,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익산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추석 연휴인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29일) 당일을 제외하고 1시간 간격으로 하루 7회 순환한다.

탑승료는 1일 성인 4,000원, 단체 3,000원(20인 이상), 초중고 장애인 경로자, 유공자 등은 2,000원으로 하루 동안 착한 가격으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미륵사지(국립 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안내소에는 익산 문화관광의 전문가인 해설사들이 추석 당일 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상주하고 있어 정기해설, 예약해설(10인 이상 사전 예약 필요)로 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캠페인